

청소년 우울의 이질적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에서의 성별 차이

김 세 원*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각기 다른 우울의 발달궤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종단적 발달궤적의 차이가 개인, 부모, 또래 및 교사의 특성으로 얼마나 예측되는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낮은 우울(58.91%)'과 '보통 우울 증가(41.10%)' 두 개 집단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낮은 우울v 증가(41.94%)', '보통 우울 증가(47.33%)', '높은 우울(10.73%)'과 같은 세 개 집단으로 발달궤적이 구분되었다. 그리고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별로 자기통제, 학업성취, 부모애착, 빈곤, 또래애착 등의 영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우울, 발달궤적, 성장혼합모형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I. 서 론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05년 5만 5천 건에서 2008년에는 10만 6천 건으로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세계일보, 2009. 11. 1). 이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경증이나 중증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울증은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자살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그 증세를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서 우울증은 우울한 증상보다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짜증,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자신감 저하, 자포자기의 사고방식, 음주, 약물중독, 가출, 성적 문란 등의 문란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충동성은 증가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력과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폭발하여 자해나 자살, 타인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09. 9. 9). 또한 자녀의 우울증이 서서히 진행될 경우, 부모가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치료 및 개입에 있어서 성인의 우울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의 변화양상 및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이들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이 안정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우울증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정아, 2009; Garber et al., 2002; Kim & Cicchetti, 2006). 특히 청소년기동안의 우울증 수준과 변화 양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까지 여아의 우울증은 남아보다 2배 정도 더 많으며(Bhatia & Bhatia, 2007), 청소년기동안 여아들은 남아보다 우울증과 관련된 더 많은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다(Angold et al.,

2002; Twenge & Nolen-Hoeksema, 2002; Wade et al., 2002). 청소년기 우울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Hankin et al., 2007), 대처양식(Nolen-Hoeksema, 2001), 사춘기 호르몬 변화에서의 성별 간 차이(Angold & Costello, 2006)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별집단을 분리하여 종단적인 우울증 발달궤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연구에서는 성별집단을 분리하여 청소년기 우울증 발달궤적을 비교하여 설명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우울증의 발현은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2-4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Bhatia & Bhatia, 2007) 때문에 우울증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고위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비행청소년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연구하거나, 일반 집단을 연구한 경우에도 단일한 발달궤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기 초기에서부터 중기에 이르는 11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달궤적의 각기 다른 하위집단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에 따라 우울증 발달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와 발달궤적의 하위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울증 문제에 특히 취약한 집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초기부터 중기동안 우울증 발달궤적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 청소년의 우울증 발달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특성의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우울증의 발달궤적 모양이나 변화의 추세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8-16세 아동에 대한 연구결과 여아의 우울점수는 12살부터 증가하였고, 남아의 경우는 13세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Twenge & Nolen-Hoeksema, 2002). 남녀청소년 집단을 구분한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기에서부터 후기동안 우울의 수준이 증가하였고(조정아, 2008), 청소년기 초기에 우울증이 감소하다 14세 정도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U-곡선을 나타내기도 했다(Garber et al., 2002). 반면, 남아의 우울점수가 아동기 중기에서부터 후기동안 감소했거나(Angold et al., 2002), 6-11세 동안 성별에 관계없이 우울증은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Kim & Cicchetti, 2006). 이와 달리 청소년기동안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된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김세원, 2009).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발달궤적으로 전체 청소년의 우울증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 가운데 우울증에 더 취약한 집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 간의 청소년의 우울증 발달궤적의 차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단일한 발달궤적을 따르기 보다는 잠재적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등과 같이 전체 집단 내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집단의 수와 발달궤적의 모양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15-24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 발달궤적이 4개로 구분되었으며, 우울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집단, 높은 집단, 급격하게 감소하는 집단 및 보통수준으로 감소하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Stoolmiller et al., 2005). 11-14세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개의 우울발달궤적이 발견되었는데, 우울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그리고 급격하게 우울이 증가하는 집단과 완만하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Brendgen et al.,

2005). 12-2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없는 집단, 안정적으로 낮은 집단, 초기에 우울증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집단, 이후 우울증이 증가하는 집단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Costello et al., 2008). 9-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이 높거나, 중간 또는 낮은 3가지 발달궤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odriguez et al., 2005). 한편, 성별에 따라 우울증 수준뿐만 아니라 발달궤적의 모양 및 우울증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4-14세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우울은 6개의 발달궤적으로 구분되었으며, 여아집단에서만 아동기 초기에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만성적 집단이 발견되었고, 우울증이 점차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높은 수준에 달하는 유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점차 감소하여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중기에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는 2개의 유형은 남아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Dekker et al., 2007).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우울 발달궤적의 하위유형 수와 모양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및 대상의 특성, 추적기간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제한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동안 우울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성별에 따라 우울증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

여러 연구에서 성별 이외에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밝혀졌으며, 이들 요인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부모 및 가족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또래와 교사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통제감이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배미예·이은희, 2009).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학업적 유능성(신현숙, 2009)이나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윤주·이숙, 2008).

다음으로 부모 또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이 있다(Brendgen et al., 2005; Dekovic et al., 2004).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애착 또는 가족의 지원 수준이 높거나 가족관계의 질이 좋은 경우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낮았다(김세원, 2009; 김애경,

2002; 이은경, 2007).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은혜 · 오경자 · 송동호, 2003; Costello et al., 2008).

한편, 또래와의 애착이나 친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낮았다(김성경, 2008; 조정아, 2009).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괴롭힘을 받는 경우 낮은 자존감, 외로움, 우울,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미경, 2000; Furman & Robbin, 1985; Hartup, 1996; 김세원, 2009에서 재인용). 그리고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 이경성 · 이해경 · 신경수, 2004). 반면에 교사의 지원이 높은 경우 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이 높은 경우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낮았다(김애경, 2002).

이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적 요인 및 부모와 또래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은 횡단 및 종단적 연구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의 발달궤적에 대해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 중 초4패널을 사용하였다. KYPS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패널데이터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서에 대한 실태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거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KYPS 초4패널 1차년도 응답자 2,844명을 5차년도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당시 응답자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

으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53.6%(1,524명)와 46.4%(1,320명)였다. 1차년도 조사 성공 패널 수 대비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표본유지율은 각각 95.2%, 94.0%, 88.3%, 86.1%로 비교적 높았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년 간격으로 측정한 우울 수준이다. 여기에서 우울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5개 문항의 응답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 0.70$ 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우울발달궤적 유형과 예측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는 KYPS 초4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통제감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들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역점수화한 각 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 0.64$ 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국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도덕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매우 못하는 수준, 5=매우 잘하는 수준)이며, 전체 문항의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0.73$ 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은 평상 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긴밀한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전체 문항의 응답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들 문항의 Cronbach's $\alpha=0.76$ 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200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빈곤선여부를 의미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또래애착은 친한 친구들과 청소년 간의 심리적 및 정서적 친밀도를 나타내며, 총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문항별 응답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0.66$ 으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애착은 교사와 청소년 간의 심리적 및 정서적 친밀도를 의미하며,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전체 문항 응답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0.55$ 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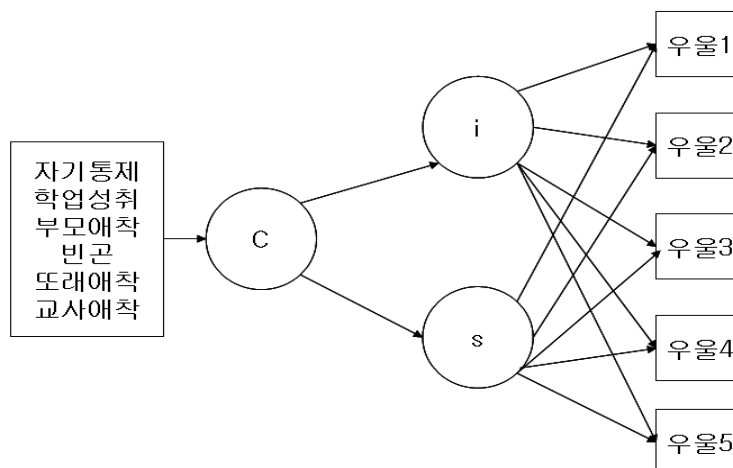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5개 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분석(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하였다. 모든 개인이 공통의 모수치를 갖는 단일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전통적 성장모형과 달리 성장혼합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하위집단별로 서로 다른 모수치를 갖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혼합모형은 개별 집단의 평균 발달궤적 모양,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 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추정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Muthen & Shedden, 1999;

Muthen, 2004).

성장혼합모형에서는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형 내 적절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수를 사용하여 적절한 모형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T)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IC와 BIC 값은 더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고, Adjusted LMR LRT 검증결과가 유의미한 경우 k-1개 모형보다 k개 집단을 갖는 모형이 좀 더 유의미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우울은 5개 시점에서 반복 측정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의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성장곡선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장곡선은 초기치(π_{0ij})와 변화율(π_{1ij})로 정의되며, 이 연구에서는 초기치(상수항)를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우울 수준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간 $t=0, 1, 2, 3, 4$ 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 즉 개인의 우울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성장혼합모형은 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최대 우도에 의해 추정되므로, 반복 측정치에서 무작위로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 청소년 우울 발달궤적의 성장혼합모형

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이 결정되면, 다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여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과 여러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Mplus 5.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분석

1.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우울평균은 10.97(표준편차=4.30),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는 11.99(표준편차=4.28)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보다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우울평균 점수가 좀 더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측정한 자기통제수준의 평균점수는 22.64(표준편차=4.14)였으며, 주관적 학업성취 평균점수는 27.26(표준편차=4.54)이었다. 부모애착 평균점수는 22.37(표준편차=4.39)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2.14만원(표준편차=176.52), 가구소득의 범위는 0-3,000만원이었다.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의 평균 점수는 각각 16.85(표준편차=2.57)와 8.20(표준편차=2.70)이었다.

<표 1> 청소년의 우울 관련 주요 변수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우울	초4(2004)	2,844	10.97	4.30	4-25
	초5(2005)	2,707	10.98	4.38	4-25
	초6(2006)	2,671	11.44	4.28	5-25
	중1(2007)	2,511	11.80	4.20	5-25
	중2(2008)	2,448	11.99	4.28	5-25
자기통제	초4(2004)	2,844	22.64	4.14	6-30
학업성취	초4(2004)	2,844	27.26	4.54	4-40
부모애착	초4(2004)	2,844	22.37	4.39	6-30
가구소득	초4(2004)	2,770	302.14	176.52	0-3,000
또래애착	초4(2004)	2,840	16.85	2.57	4-20
교사애착	초4(2004)	2,844	8.20	2.70	2-15

2. 청소년 우울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결과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단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AIC와 BIC 값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Adjusted LMR-LRT의 검증결과는 2개 모형과 3개 집단모형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유형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집단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최소 집단의 비율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2개 집단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또한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감소하며, Adjust LMR-LRT의 검증은 집단을 4개로 구분했을 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just LMR-LRT의 검증이 유의미한 모형 중 AIC와 BIC 값이 가장 작은 3개 모형이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을 3개로 구분했을 때 최소집단의 비율은 5% 이상이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 수

남자(N=1,524)				여자(N=1,320)		
집단 수	AIC	BIC	Adjusted LMR-LRT	AIC	BIC	Adjusted LMR-LRT
1	40067.122	40104.425	-	35589.704	35626.002	-
2	39423.167	39476.458	621.680**	34717.933	34769.787	838.856**
3	39343.312	39412.590	82.120**	34559.736	34627.146	156.917*
4	39276.353	39361.619	69.785	34497.262	34580.229	65.438

*p<.05, **p<.01

3.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별 특성

성장혼합모형분석결과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은 성별에 따라 하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은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째, ‘낮은 우울’ 집단의 초기치는 9.353으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낮은 우울수준이 지속되는 집단으로 남자 청소년 중 58.91%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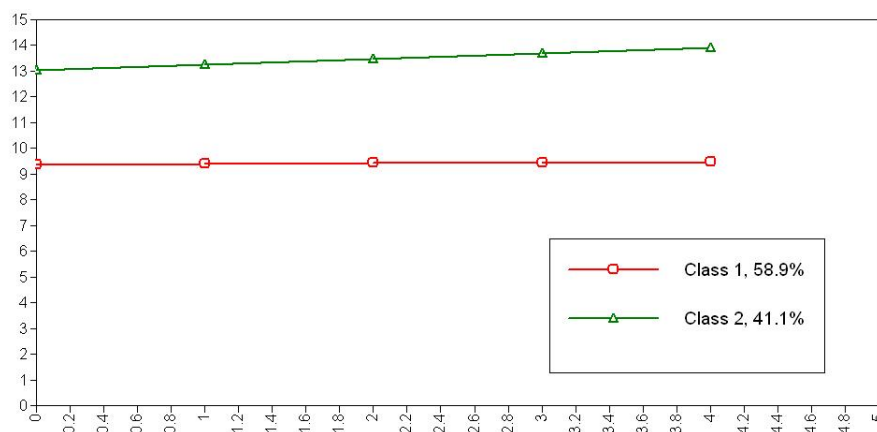
둘째,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13.040과 0.219였으며, 각각 유의수준 $p<.01$ 과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집단의 우울 초기치 수준은 남녀집단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간 정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 가운데 41.10%가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표 3>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계적 하위집단의 초기치 및 변화율

집단	초기치(표준오차)	변화율(표준오차)	N(%)
낮은 우울	9.353(0.192)**	0.030(0.073)	898(58.91)
보통 우울 증가	13.040(0.266)**	0.219(0.097)*	626(41.10)

* $p<.05$, ** $p<.01$

남자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우울발달계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남자 청소년 집단 우울 발달계적 유형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낮은 우울 증가’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8.454와 0.391로,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여자 청소년 가운데 41.94%가 이 집단에 속하였으며, 이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은 여자청소년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둘째, ‘높은 우울’ 집단의 초기치는 16.625이며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우울 초기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흘러도 우울 수준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가운데 10.73%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우울 문제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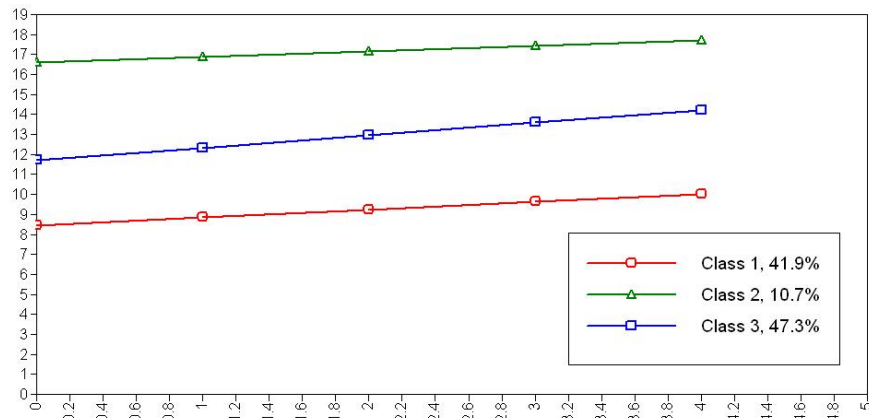
셋째,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11.706과 0.627이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집단 가운데 우울 초기치 수준은 보통이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은 약간 증가하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은 중간정도였다. 전체 여자 청소년 가운데 47.33%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의 초기치 및 변화율

집단	초기치(표준오차)	변화율(표준오차)	N(%)
낮은 우울 증가	8.454(0.216)**	0.391(0.112)**	554(41.94)
높은 우울	16.625(0.640)**	0.275(0.168)	142(10.73)
보통 우울 증가	11.706(0.668)**	0.627(0.124)**	624(47.33)

** $p < .01$

[그림 3]은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높은 우울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모두 우울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림 3] 여자 청소년 집단 우울발달궤적 유형

4.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별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다른 발달궤적을 따라 변화하였으며, 남자와 여자 집단 간 우울 발달궤적의 모양 및 집단의 수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에서는 각기 다른 우울의 발달궤적별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별로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울문제에 취약한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청소년 모두 기준집단은 우울의 초기치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하였다.

먼저,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집단이며, 자기통제와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더 낮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증가’ 집단이며,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학업성취수준과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이나 ‘높은 우울 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남자 청소년과 달

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거나 우울 수준이 높은 발달궤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나 빈곤이나 또래애착은 높은 우울이나 우울이 증가하는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청소년 우울 발달궤적 집단 소속에 대한 영향요인 odds ratios

변수	남자 집단	여자 집단	
	낮은 우울 지속 vs 보통 우울 증가	낮은 우울 증가 vs 보통 우울 증가	낮은 우울 증가 vs 높은 우울 지속
자기통제	0.88**	0.86**	0.79**
학업성취	0.97	0.94*	0.93*
부모애착	0.93**	0.90**	0.87**
빈곤	2.23*	2.03	2.53
또래애착	1.07*	1.03	1.10
교사애착	0.98	0.97	1.00

*p<.05, **p<.01

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발달궤적과 각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YPS 초4패널 2,844명의 5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 집단별로 우울의 발달궤적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발달궤적은 2개의 하위집단, 즉 ‘낮은 우울(58.9%)’과 ‘보통 우울 증가(41.1%)’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과반수 이상의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기 초기에서부터 중기동안 낮은 우울수준을 보였고, 우울이 증가하는 집단의 경우에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의 초기치나 증가수준은 보

통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은 ‘낮은 우울 증가(41.94%)’, ‘보통 우울 증가(47.33%)’, ‘높은 우울(10.73%)’ 집단과 같이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남자 청소년과 달리 우울 발달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우울 수준이 만성적으로 높았다. 특히 ‘높은 우울’ 집단은 전체 청소년 하위 집단 가운데 우울의 초기치 수준이 가장 높아 우울 문제에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 수준은 시간이 흘러도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경우 우울의 증가 추세가 청소년기 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우울로 인해 인생 후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들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집단의 우울 변화양상을 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경험하는 여러 변화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의 정도(Hankin et al., 2007), 대처양식(Nolen-Hoeksema, 2001), 사춘기 호르몬 변화에서의 성별 간 차이(Angold & Costello, 2006)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 증가로 인한 기분조절 장애는 우울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여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체계 반응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teiner et al., 2003).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의 호르몬 변화는 신경전달물질체계의 반응성과 스트레스 반응성에 좀 더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거나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Angold et al., 2002).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이 종단적으로 여러 발달궤적을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성별에 따라서 우울 발달궤적의 하위집단의 수와 발달궤적의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것은 청소년기나 이후 성인기까지 문제를 경험할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종단적으

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Bhatia & Bhatia, 2007; Dekker et al., 2007; Twenge & Non-Hoeksema, 2002)와 일관된다. 그러나 우울이 급격히 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유형이 발견된 연구결과(Costello et al., 2008; Stoolmiller et al., 2005)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발달궤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연령의 범위나 표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우울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밝혀진 각 발달궤적유형을 종속변수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우울증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집단이며, 자기통제와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또래애착이 높은 경우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자 청소년의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증가’ 집단이며, 자기통제, 주관적인 학업성취수준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보통 우울 증가’나 ‘높은 우울 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통제(배미예·이은희, 2009), 학업적 유능성(남윤주·이숙, 2008; 신현숙, 2009), 부모애착(김세원, 2009; 김애경, 2002; 이은경, 2007), 사회경제적 지위(하은혜 등, 2003; Costello et al., 2008)등이 청소년의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김성경, 2008; 조정아, 2009)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은 낮은 우울 지속집단에 비해 보통 우울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성(예를 들어, 비행행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결과 청소년의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높은 자아통제와 부모애착수준은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더 높은 우울이나 우울증상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춘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지지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또래애착수준은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학업성취수준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우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개입방법이나 프로그램 요소, 개입단위 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일부 집단은 청소년기 초기에 이미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지만, 이 집단 내에 있는 청소년의 우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초기를 포함하여 우울 발달궤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초기에서부터 중기동안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울 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정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그리고 심리 정서적 태도 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경(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1호, pp.381-406.
- 김세원(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제28권, pp.101-135.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3호, pp.31-50.
- 남윤주·이숙(2008).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2권 제2호, pp.1-16.
- 배미예·이은희(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85-112.
- 신현숙(2009). 단기종단연구를 통한 아동기 우울과 학업적·사회적·행동적 유능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3호, pp.73-98.
- 신현숙·이경성·이해경·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pp.491-510.
- 이은경(2007). 청소년의 행복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정신건강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71-99.
- 조정아(2008). 청소년의 정신건강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부모·친구·교사 효과 검증.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211-228.
- 조정아(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pp.167-192.
- 하은혜·오경자·송동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2권 제2호, pp.127-14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http://panel.nypi.re.kr/>

- 세계일보. 2009. 11. 1. 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들. '우울증 늪'에 쉽게 빠져...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 연합뉴스. 2009. 9. 9. 사회질환 소아 우울증의 원인과 해결방안.
- Angold, A. & Costello, E.(2006). Puberty and depression. *Child and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5, pp.919-937.
- Angold, A., Erkanli, A., Silberg, J., Eaves, L., & Costello, E. J.(2002). Depression scale scores in 8-17-years-olds: Effects of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3, pp.1052-1063.
- Bhatia, S. K. & Bhatia, S. C.(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75, pp.73-80.
- Brendgen, M., Wanner, B. Morin, A. J. S., & Vitaro, F.(2005). Relations with parents and with peers, temperament, and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3 No. 5, pp.579-594.
-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R. S., & Dierker, L. C.(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6 No. 2, pp. 173-183.
- Dekker, M. C., Ferdinand, R. F., Van Lang, N. D. J., Bongers, I. L., Ende, J., & Verhulst, F. C.(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8 No. 7, pp.657-666.
- Dekovic, M., Buist, K. L., & Reitz, E.(2004). Stability and changes in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3, pp.1-12.
- Garber, J., Keiley, M. K., & Martin, N. C.(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0, pp.70-95.
- Hankin, B., Mermelstein, R., & Roesch, L.(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Vol.

78, pp.279-295.

- Kim, J., & Cicchetti, D.(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77, pp.624-639.
- Muthen, B.(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Kaplan D.(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pp.345-368.
- Muthen, B. & Shedden, K.(1999). Finite mixture modeling with mixture outcomes using the EM algorithm, *Biometrics*, Vol. 55, pp.463-469.
- Nolen-Hoeksema(2001).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0, pp.173-176.
- Rodriguez, D., Moss, H, & Audrain-McGovern, J.(2005). Developmental heterogeneity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sociations with smoking behavior, *Psychosomatic Medicine*, Vol. 67, pp.200-210.
- Steiner, M., Dunn, E., & Born, L.(2003). Hormones and mood: From menarche to menopause and beyon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74, pp.67-83.
- Stoolmiller, M., Kim, H., & Capaldi, D.(2005). The course of depressive symptoms in men from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dentifying latent trajectories and early predic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4, pp.331-334.
- Twenge, J. M. & Nolen-Hoeksema, S.(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1, pp.578-588.
- Wade, T., Cairney, J., & Pevalin, D.(2002).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National pane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41, pp.190-198.

ABSTRACT

The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ir Predictor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im, Se-Won*

This study identified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using data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adolescents from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in middle school. The present study used a growth mixture model to def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For boys, two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a low-level(58.91%) and a moderate and increasing trajectory(41.10%). On the other hand, for girls, three trajectories were found: a low and rising trajectory(41.94%), a moderate and increasing trajectory(47.33%), and a chronic high-level(10.73%) trajectory.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Self-control, academic achievement, parent attachment, poverty and friend attach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ajectory class membership. 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rajectories in adolescence, suggesting an etiological heterogeneity.

Key Words : adolescence, depression, trajectories, growth mixture model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1월 18일, 심사완료일 : 2월 9일

* Postdoctoral Researcher,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